



사진 1

사진 3

사진 4

사진 5

사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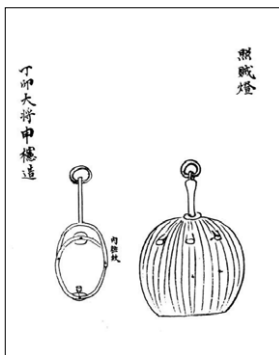


사진 2

제등[提燈] - 조족등[照足燈]

자루가 있어 들고 다니는 제등(提燈)의 한 종류로서 조족등(照足燈)이 있다. 발밑을 비춘다는 의미로 조족등이라고 하지만, 그 형태가 박과 같다하여 박등, 도적을 잡을 때 사용한다 하여 도적등(盜賊燈), 조적등(照賊燈), 탐조등(探照燈) 등으로 불려왔다. 더불어 고요하게 자취를 쫓아 비춘다는 뜻으로 조적등(照寂燈) 또는 조적등(照賊燈)이라고도 하는데, 군사용으로 쓰였다. 조선 후기 고종 때 간행된(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에 조적등(照賊燈)에 관한 기록이 있다. 1867년 대장(大將) 신현(申樞)이 만들었다고 하며, 그 용도와 관련하여 대체로 군영(軍營)을 습격할 때, 강을 몰래 건널 때, 날씨가 어둡고 비가 와서 캄캄할 때에 적으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하게 하므로 검게 기름칠한 가리(조)보다 낫다고 하였다.

가리란 밀이 없는 통발 비슷하게 대로 엮어 만든 어구(漁具)로 아마도 조적등을 쓰기 전에 가리처럼 생긴 등을 먼저 사용하였던 것 같다. 이어서 이 등과 관련하여 두 가지 신묘한 점을 들고 있는데 첫째, 들어서 적을 비추면 적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능히 적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과 둘째, 비록 어둡고 깊이 들어간 곳[深凹之處]에서도 모두 비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순라꾼(巡邏軍)이 밤에 순찰을 돌 때나 궁중의 빈전(寢殿), 관청에서 군사 또는 관용으로 두루 사용되었으며, 점차 민간으로도 퍼져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형태를 보면 등갓은 마치 박이나 얹어놓은 둥근 항아리 같고 지름 15~30cm 정도이며, 위쪽에는 숨구멍과 함께 20cm 내외의 손잡이용 자루가 달려 있다. 등 아래쪽을 트고 댕가지나 쇠 부챗살처럼 뼈대를 갖춘 다음 안팎으로 기름 종이를 여러 겹 발랐다. 등갓의 표면은 세로로 줄이 난 누비주름 형태가 많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경구(警句)나 길상(吉祥)의 무늬를 넣고, 눈·비에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옷칠(黑漆-검은 빛깔의 옷)을 하였다. 그리고 등 내부에는 회전식 철제 초꽃이를 설치하여 등이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항상 초가 수평을 유지하여 불이 쉽게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사진 및 자료 / 국립민속박물관
글 / 민병근(전기박물관 학예연구사)

- 사진1) 조족등(照足燈)// 조선시대// 밑지름 14~14.5cm, 높이 36.5~43cm// 국립민속박물관
- 사진2) 훈국신조군기도설(訓局新造軍器圖說)의 조적등(照賊燈)
- 사진3) 조족등(照足燈)// 조선시대// 밑지름 16.5cm, 높이 38cm// 국립민속박물관
- 사진4) 조족등(照足燈)// 조선시대// 밑지름 14.5cm, 높이 26cm// 국립민속박물관
- 사진5) 조족등(照足燈)// 조선시대// 밑지름 20cm, 높이 35cm// 국립민속박물관
- 사진6) 조족등 내부 모습